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자원개발론(YRD : Youth Resource Development)의 탐색적 시도

이 광 호*

이 연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청소년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특히 청소년자원개발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시도로서,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의 구조를 궁극적 목적으로서 발달과제, 청소년을 이해하는 시각, 전략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청소년자원개발론은 기존의 문제예방 등과 같은 소극적인 시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원 내지는 사회변화의 주체로 이해하며, 아울러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통합적 이행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청소년의 발달과제를 준비된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직업능력과 고용가능성과 같은 자질 등으로 설정하는 자질 지향적 접근을 중시한다. 또한 청소년자원개발의 통합적 요소로서 긍정적 청소년발달, 학습능력 및 직업능력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성과 지향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서비스, 지원 및 기회부여를 주요한 청소년자원개발의 기본 전략으로 간주하며 특히, 지원과 기회부여를 더욱 강조한다. 결국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 직업능력 및 청소년발달을 지원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다.

I.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고도의 정보테크놀로지, 세계적 차원의 초경쟁(mega competition),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장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의 국가발전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인력개발 체제가 산업화 과정의 기능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고도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노동시장의 수요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인력개발, 노동시장의 유연화·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미흡, 경제환경의 변화에 낙오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지원 미흡-하고 다음과 같은 인력자원개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참조: 재정경제부 외, 2000). 첫째,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둘째,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셋째, 평생직업을 위한 평생교육기반의 구축 넷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다섯째, 취약계층별로 특성화된 지원 및 훈련강화 등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정규 교육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청소년층에 친숙한 사이버 훈련 강화, 인터넷방송 실시 등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능력개발 지원 및 훈련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정책 분야에서도 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청소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그 동안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의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이나 자원봉사와 직업체험활동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의 직업능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최충욱, 2000: 112-113)고 제안한다.

한편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차원에서 최근 OECD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청소년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의 해소, 기량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통한 원활한 학교-직업세계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노력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급증하고 있다(참조: 신명훈, 1998; 오정란, 1998; 이상오, 1998; 박창남, 1999; 장원섭 외, 1999).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간의 괴리 심화, 학교교육의 인문화 경향과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 노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불안정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과 배치 측면에서 학교교육과 직업세계 사이의 연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다(참조: Kumaran, 2000). 따라서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지도의 문제진단과 활성화 차원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진로와 직업교육훈련 문제뿐만 아니라 산·학·관 연계를 포함한 이행 네트워크 구축 등 총체적인 현장개선과 관련 정책개발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육성 차원 혹은 인적자원개발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과 일 및 여가를 체험 활동을 통해 연계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학교-직업세계 이행 문제에 대한 규명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직업훈련 및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노력들은 여전히 학교중심의 진로지도나 교육,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과 권리신장을 위한 청소년 육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의 분야별로 높은 담을 쌓고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라는 커다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청소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의 정립은 뒤로 미루고 청소년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려는 무시한 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문제극복을 위해 반복해 온 조각 조각의 정책과제들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크게는 창의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입직 연령 단축과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및 직업교육과 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비롯하여 작게는 비진학 및 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조기 영재발굴 및 기초교육 국가책임 체제 확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참조: 교육부a, 2000).

직업능력개발 정책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이 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와 지원에 대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위기 진단과 분석은 도외시한 채,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직업훈련기준과 내용의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 훈련성과 유인책의 확대(참조: 이우룡, 1999)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정책 역시 청소년의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을 주요한 청소년육성의 지표(21세기 청소년상)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지원에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며,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 사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처받기 쉽거나 상처받은 청소년으로 양분되어 예방, 보호, 교정의 틀 속에서 학업성적이나 장래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교육적·직업적으로 준비된 각종 제도적 지원망보다는 주로 친구, 부모 형제 등과 의논(참조: 맹영업, 1998; 이광호 외, 1998)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 스스로 알아서(do-it-yourself)’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나아가고 있다(참조: 박창남, 1999; 장원섭, 1999).

따라서 우리 사회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제 학교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그 밖의 많은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들이 왜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청소년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 함양, 직업훈련,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육성적 지원 등으로 조각조각 제공해온 노력들을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육성 논의 구조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논의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논의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서 ‘청소년자원개발론(YRD; Youth Resource Development)’의 논의 구조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청소년자원개발론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논의로서 청소년에 대한 관점, 목표, 전략 및 접근방식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II.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청소년육성에서의 수용 가능성

인적자원개발은 논의의 역사가 아직 일천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매우 종합적인 간 학문적(間學問的) 성격을 띠고 있어,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전적·협의적 개념에 따르면 ‘한 조직 내에서 직무 성과의 향상 가능성 및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개발(ID), 조직개발(OD), 경력개발(CD)을 통합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습활동’(이무근, 2000: 22)으로 정의된다. 즉, 인적자원개발 개념은 인간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개인적 향상(교육) 뿐만 아닌 현재 수행하는 직무(훈련)와 미래에 할당될 작업을 준비하는 것(개발)을 가리킨다(나일주 편저, 1994: 26). 간략히 말해 인적자원개발은 인간의 지식, 기술, 업무수행능력과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야기하는 학습과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수행 활동을 개선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고 할 수 있다(참조: 한준상 편, 1997).

그런데 최근 인적자원개발 개념은 기존 조직차원의 교육·훈련·발전을 중시한 차원에서 확대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초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적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이라는 소위 국가 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지속적인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첫째, 산업인력의 수급을 중핵으로 하는 인력개발, 둘째, 국민의 기초학력, 인성 및 도덕적 성숙을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자본 형성, 셋째,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 총 인적자원의 효율도 제고 등을 3대 기본요소로 설정(참조: 교육부b, 2000)하고 있다. 결국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우수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기초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제적이고 양적 관점의 인적자원 개념 및 조각 조각의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초학력, 소양, 정보력 등 총체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 수준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사회구성원-아동, 청소년, 여성, 성인 및 노인 등-전체의 개인적 개발, 핵심적 역량의 증대를 중핵으로 한 경력개발 및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적 개발을 기본적 요소로 삼는 인간 중심의 지식, 기술, 태도와 행동 등의 개선을 지향하는 종합적 국가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국가 인적자원개발 논의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첫째,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양적 성장과 경제 중심의 인간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 이해에 대한 틀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과정에 대한 아동에서 노인으로의 총체적인 이행과정이라는 연속적 과정으로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교육 따로, 훈련 따로 혹은 일 따로, 공부 따로, 여가 따로 식의 파편화되고 협소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전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국가·사회 발전 전략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노력들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초점이 협소’하고 ‘단기간’에 일정한 성과를 기대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기본 전제는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

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국가·사회발전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과 국가 수준의 대응 전략은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기존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나아가 청소년층의 인적 자원의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준다.

그런데 청소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기업교육, 성인교육 혹은 학교교육 내지는 직업교육훈련 중심의 논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적어도 생애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는 작업이 융합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발달과 지적 학습과 직업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불확실해져 가는 노동시장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데 더 많은 책임을 부가시키며, 유연성과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는 ‘모두를 위한 진로개발’이 사회통합과 경제번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참조: Dusseldrop Skills Forum, 1997).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업,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경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제각각’, ‘조각조각’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포괄적 실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기존의 청소년의 교육, 훈련, 개발 등과 관련된 기관과 조직,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갖가지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및 ‘학습과 일과 여가’의 융해가 필요하다. 이는 곧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존 조직과 논의 및 자원들의 통합된 체제와 논의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적 논의 구조는 바로 ‘청소년자원개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틀 속에서 청소년층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적·실천적 논의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지도 혹은 청소년보호와 청소년육성이라는 분파적 접근 그 이상의 것이다(그림 1 참조).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자원개발 논의는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한다.



비고 : 이무근(2000)의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생애교육간의 관계를 수정·보완한 것임

그림 1 : 청소년자원개발(YRD)의 관계 위상

특히 최근 인적자원개발 논의의 경향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과 활용을 강조하는 '훈련' 중심 패러다임에서 좀더 포괄적·지속적이고 깊이가 있으며, 학습자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주도적 학습인이자 협동적 학습인이라는 사실 및 학습과 삶(현업, 직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연결성을 통한 실천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유영만, 1998; 한준상, 1999; 강인에, 2000). 이러한 최근 인적자원개발의 경향성은 학교교육을 비롯한 청소년육성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자원개발 논의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정책방향 설정과 논의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개념의 확대는 청소년자원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III. 청소년자원개발의 방향과 전략:

퓨전 인적자원개발(fusion HRD)로서의 청소년자원개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청소년자원개발의 통합적·포괄적 실천 노력에서는 성인의 경우와 달리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발달이론과

실천 현장의 청소년과 함께 하는 다양한 노하우 및 직업훈련교육 기관이나 내용의 갖가지 기능적 요구와 전망 등의 융합이 더욱 요구된다. 즉, 청소년자원개발은 학교 중심, 일터 중심,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진로개발 지향 요소들의 통합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의 교육과 개발 및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적 요소와 대안들은 청소년발달 관점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연계하는 노력과 이론적·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이론적·경력 지향적 기량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준비하는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인식과 지역사회 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관계할 수 있는 역량도 동시에 필요하다. 자칫 지적 학습이나 일 혹은 진로 등 각각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자원개발의 성취 목록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개발은 학교와 교육훈련기관 및 직장과 같은 형식적 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 조직, 가정, 친구, 거리 등 비형식적·무형식적인 장에서도 일어난다. 무형식적인 장에서의 상호작용은 형식적인 장에서의 상호작용만큼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자원개발 논의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다양한 서비스’-교육, 훈련, 개발, 육성-와 ‘지원의 장’-학교,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청소년과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융해가 요구된다. 즉, 청소년자원개발 논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퓨전 스페이스(fusion space), 퓨전 테크놀로지(fusion technology)로서 인적자원개발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자원개발 논의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 실천목표 및 전략 등의 총체적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1. 청소년자원개발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

청소년자원개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검토·정립되어야 할 사항은 한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문제이다.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나 실천 노력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발달과 관련하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 및 자아정체성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청소년은 성장기에 있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 내지는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나쳐 넘칠 수 있는 위험성을 잠재한 존재 등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 수동적 시혜로서 지

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등으로 부족을 보완해주거나, 넘칠 위험이 있는 것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예방·치료·교정 등 개입 위주의 사회적 처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결국 청소년은 언제나 상처받기 쉬운 세대 혹은 상처받은 아이들과 같은 문제 발생의 예비자인 셈이다. 즉, 지난 50년 전 제임스딘이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우상들이 12~20세의 청소년들을 성욕의 시한폭탄이자 무책임한 모험과 반사회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존재로 규정하는데 일조를 한 이래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야만인과 ‘작은 범죄자’의 혼합물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대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스러운 행동에 너무 깊숙이 간여하고 있다는 낙인을 찍는다’(Purdum, 2000).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이해 관점에는 청소년을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떤 기질이나 특성에서 지나치거나 위험성을 내재한 존재라는 일종의 ‘결핍 관점’(deficit-based model) 내지는 ‘억제 관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처방 역시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폭력, 가출, 자살, 혼전 임신, 약물, 비행 등-에 주목하여 그들은 누구인가,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국 청소년에 대한 처방은 이미 드러난 문제행동이나 범죄를 감소 혹은 중단시키려는 의도의 ‘개입’과,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무엇인가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도로 ‘예방’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청소년문제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조: Perkins, 1997). 즉, 청소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정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문제해결 도와주는 위기적 접근(the crisis approach), 청소년의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심리·행동적 과제들을 성취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치료하는 교정적 접근(the remedial approach),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여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the preventive approach)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Myrick, 1997: 8-11).

이러한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처방은 청소년문제의 예방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적인 대응방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에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다양한 역량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는 ‘절반의 대응 내지는 처방’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고 소극적인 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일련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과 성인의 도전 및 사회적·도덕적·감성적·신체적·인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돕는 체험을 통해 청소년을 준비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발달에 대한 관심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경향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즉, 복잡하고 경쟁적인 세계 시장의 형성과 함께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생산적 인력, 효과적인 부모, 책임 있는 시민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성인에 이르고 있다는 반성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21세기의 무한 경쟁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유연한 인력 자원으로 양성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책무를 다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청소년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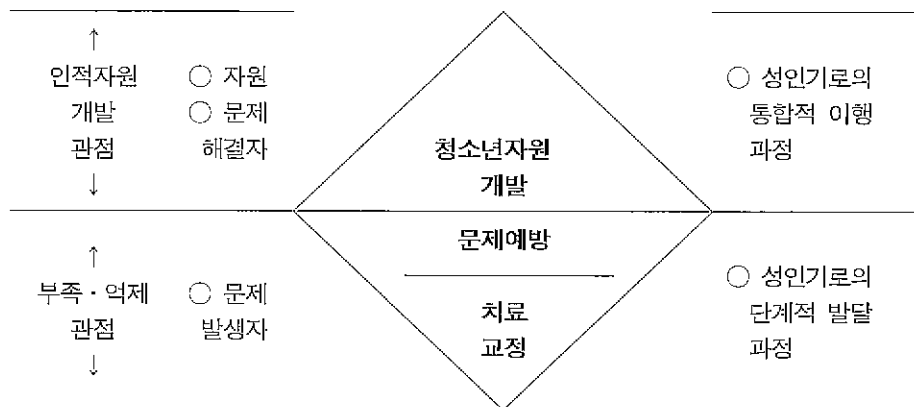


그림 2 :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자원개발의 시각과 관점

따라서 청소년자원개발 논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핵심역량을 구비한 인적 자원으로서 청소년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보다 문제예방에 집중하는 소극적 관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체험에 청소년을 보다 더 많이 노출시키도록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자원개발은 예방이나 억제 및 문제의 감소를 뛰어 넘어 철저한 준비와 발달을 강조하는 청소년발달에 대한 접근이다.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관점은 청소년이 직면하고 야기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예방이나 감소가 인간발달로서 청소년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 간주한다(참조: Pittman, Cahill and Zeldin, 199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발달 관점과 문제예방과 개입이라는 소극적 예방 관점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은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친화동적이고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통한 청소년발달이 문제예방과 감소에도 보다 효과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위험성이 높고 긍정적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탈선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동에 관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참조: NYDIC, 1999)는 사실을 강조한다.

표 1 : 청소년자원개발론적 접근의 관점과 목표

접근 방법		청소년에 대한 시각	목 표
긍정적 적극적 발 달 관 점	청소년자원 개발론적 접근	○ 자원으로서의 청소년(youth as resources) - 변화의 주체(change agent) - 자질 지향 접근(asset-based approach) ○ 문제 해결자로서의 청소년 ○ 학습자로서의 청소년	○ 준비된 성인 - 아이덴티티, 고용가능성 등의 역량 등 자질 준비 ○ 서비스, 기회, 지원 ○ 수행능력의 증진
	예방적 접근 위기적 접근 교정적 접근	○ 문제야기자로서의 청소년 -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 - 상처받은 청소년 ○ 문제나 예방에 관심 - 공중위생 모델 - 결함모델 - 억제모델	○ 예방 ○ 개입 - 치료 - 교정

그러므로 청소년자원개발에서는 예방과 개입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을 포함하되, 건전한 성인으로의 이행을 위한 발달과 준비를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에 대한 관점이다. 즉, 청소년자원개발론적 관점은 청소년은 누구인가에 대해 새롭게 조망하고, 그들이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발달 경험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원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우선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을 과부족이 아니라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즉, 청소년은 그 사회의 문화적·경제적 자원(youth as resources)인 동시에 성인과 함

게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적극적 존재로 인식한다(참조: Nagorski, 1999; Pittman, 2000).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해 가는 전반적인 과정이지 사건이나 분절된 시기가 아니라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과 경로를 강조한다. 청소년기가 일생의 특정 단계라는 고정적이고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아동에서 성인초기로 이행해 가는 전반적인 이행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행과정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문제나 위험스러운 행동이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전전한 청소년으로서 경험해야 할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며, 최적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간주한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스러운 실험적 행동들은 가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조: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이렇게 볼 때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을 위해 회복해야 할 나머지 절반의 접근방식인 셈이다.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청소년은 그 사회의 문화적·경제적 자원인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동반자이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지나치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주어진 과업을 완수해 가는 발달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애과정에서 볼 때 아동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해 가는 통합적인 이행과정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발달단계의 과업 미완수나 다소 앞선 성취는 일탈이나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 이행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인 동시에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2. 청소년자원개발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발달 과제와 요소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기의 이행과정을 통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소양과 역량을 구비하고 고용가능성을 갖춘 생산적 인력, 책임 있는 시민 및 효과적인 부모 등과 같은 ‘준비된 성인’으로 청소년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자원개발은 기존의 인간발달 단계별 과업(developmental task) 설정보다는 충분히 준비된 성인에게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가 즉, 성공적인 성인의 개념을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전제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였을 때 요구되는 일련의 자질(developmental assets or outcomes)이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바람직한 결과 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의 발달요구에 부응하는 총체적인 청소년발달에 대한 접근인 동시에 자질 지향적(assets-based approach)이고 강점 지향적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NYDIC, 1999 ; Search Institute, 1999).

표 2 : 청소년자원개발의 궁극적 목적으로 발달 과제

정체성 영역	능력 영역
○ 안전감 ○ 높은 자기 가치와 존중감 ○ 성숙감 ○ 소속감 ○ 책무성과 자율성 ○ 자기 의식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학습능력 ○ 직업능력 및 고용가능성 ○ 시민적·사회적 참여

참조 :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1996)

청소년자원개발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성공적인 청소년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문제예방’과 ‘지위성취’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덧붙여 바람직한 결과로서 제3의 범주를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청소년 혹은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안정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등의 지위 성취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자원개발은 긍정적 자아감, 다른 사람과의 연계감,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능력과 자질 습득을 더욱 중요한 성공의 지표로 간주한다. 결국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성공적 지표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제는 안전감·소속감·자율성과 책무성·자기존중과 이해 등과 같은 자기정체성 측면과 지적 능력·직업능력과 고용가능성·사회적 관계와 참여 능력 등과 같은 역량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다(표 2 참조). 특히 이러한 일련의 발달적 자질을 성취한 청소년은 전통적인 지위성취와 예방의 기준에 의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참조: Pittman, 1996)고 확신한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상징하는 청소년발달의 결과 혹은 과제는 개인적·심리적 요소나 사회 기량이나 역량 등 어느 하나에 국한하기보다는 인간발달의 이행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요구는 총체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발달, 일(직업)능력 개발 및 학습능력 개발을 주요한 3대 통합적 요소로 삼는

다(참조: 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 2000). 첫째, 청소년발달은 청소년발달 원리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활동을 만들어내고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발달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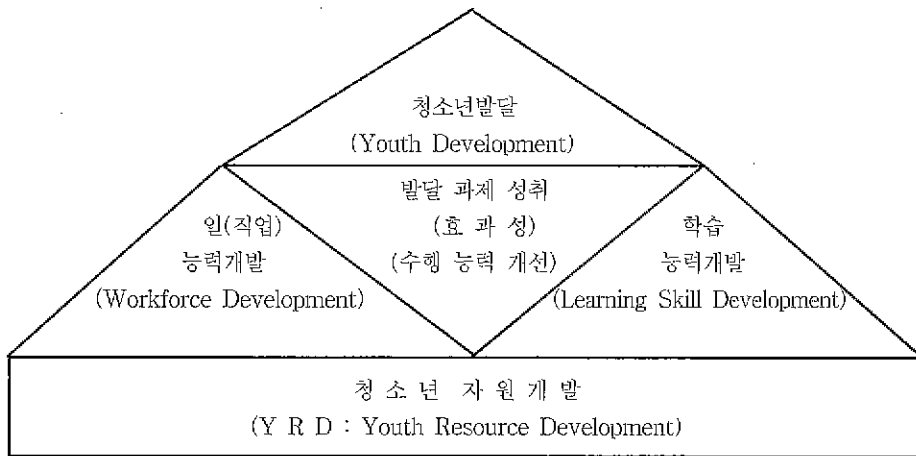


그림 3 : 청소년자원개발의 통합적 요소

그리고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는 대학진학이나 안정된 고용이라는 전통적 지표를 초월하여 얼마나 이러한 발달과제를 성취하였는가 혹은 과제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나 수행 증대를 가져왔는가에 따라 판별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자원개발은 기존의 교육훈련·개발 중심에서 성취지향(성과 향상의 효과성)의 중심 접근이며, 인적자원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의 퓨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자원개발의 바람직한 일련의 결과나 자질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결과가 성공적인 이행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회에서는 자기충족이 시민성이나 다른 성공적 지표보다 주요하게 간주될 수도 있다(참조: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그러므로 청소년자원개발은 지역사회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청소년 발달 모델과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합의의 도출을 중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자원개발은 조직 중심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삶의 장소에 기반을 둔 접근(place-based approach)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이 청소년자원개발은 안전과 보살핌, 자신이 가치 있고 유용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개인의 욕구로서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

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형성하는 등 그 목적을 광범위하게 확대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발달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목적의 확대는 청소년자원개발의 주요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즉, 광범위하게 확대된 목적으로서의 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Zeldin and Charter, 1996: 6-7)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광범위한 목적은 청소년발달 분야의 임무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제예방에 중점을 둔 임무 대신에 청소년 발달 분야는 그 일이 어떻게 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이익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 용어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목적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발달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줌으로써 일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긍정적 청소년발달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목적은 그 자체에 책무성과 평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학교 졸업이나 안정된 직장 취업 혹은 만족도 등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발달 과제를 위한 그 자체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목적 자체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목적의 확대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현장의 실천가들을 고무시키고,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일반적 미션을 제공한다. 또한 긍정적이고 획득 가능한 목적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속적인 실천과 행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 청소년자원개발의 전략

청소년자원개발에서는 청소년의 성공적인 책임 있는 성인으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준비와 발달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목적과 전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기존의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적이거나 직업, 고용결과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단기기간이며, 구체적인 결과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일반적 경향에 바탕을 둔다. 또한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생애의 복잡성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청소년발달의 복잡성과 발달과정에서의 참여가 청소년자원개발 전략의 중심적 역할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 3 :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기본 전략의 내용

기본 전략	내 용
서비스 (service)	지도, 보살핌 및 안정적 장소의 제공 - 휴면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안정적 장소
지 원 (support)	동기적, 정서적, 전략적 지원 - 건전한 관계, 역할모델, 자원과 네트워크, 높은 기대와 명확한 준거
기 회 (opportunities)	학습, 실수, 기여할 기회 제공 - 양질의 교수, 훈련, 비형식적 학습 및 도전적 역할과 책무성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청소년자원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상정한다(참조: Pittman, 1996). 첫째, 양질의 서비스(service)이다. 서비스는 교육, 건강, 고용, 비행예방과 같은 서비스로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자신을 표현하고 기여하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집단의 일원이 되는 도전적인 기회에 대한 서비스 및 존중, 모범, 기대, 지도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성인과 친구 등의 제공을 포함한다. 둘째, 지원(support)이다. 일상생활에서 성공을 위한 동기적, 정서적, 전략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은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고용주, 친구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제공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셋째, 기회(opportunities)이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행동하고 탐구하고 표현하고, 일하며 벌고, 소속되고 영향을 주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기회는 청소년에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다른 역할을 시도하는 기회를 준다. 청소년은 성인과 함께 참여를 통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은 모든 형태와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 전략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부족하거나 상호 경쟁적이다. 서비스는 종종 성인이 청소년에게,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의사 소통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회와 지원을 더욱 강조한다. 기회와 지원은 서비스를 보완하고, 청소년이 체험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자원개발 논의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발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과 기회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참조: Zeldin and Charter, 1996). 첫째, 활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기회, 둘째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기회 셋째, 성인과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및 동기 부

여 지원과 높은 기대 수준 네트워크, 전략적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접근이다.

한편 청소년자원개발에서는 특히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요소로서 지역사회 역할의 강화를 강조한다. 모든 청소년발달 단계에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사회는 안전하며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생활, 진로, 각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자원개발에서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키고 강화시켜가는 변화의 주체이자 문제해결자로 이해(참조: Pittman, 2000)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자원개발의 기본전략인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systems approach)과 장 기반적 접근(place-based approach) 등 2가지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Kauffman et. al., 1992: 8-9). 첫째 지역사회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에 기여하는 기본적 체제의 변화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많은 체제가 청소년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적 접근은 기여하고 있는 여러 체제를 평가하는데 바탕을 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가정 지원체제, 초기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체제, 학교교육체제 및 청소년의 체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발달 서비스체제의 변화와 개발에 중점을 둔다.

둘째, 청소년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체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경제발전, 성장을 고무하는 인간개발, 양질의 교육기회, 시민적 자부심과 참여 등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장 기반적 접근은 이러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투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의 지침이 된다.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 요소는 경제개발, 인간개발 및 지역사회의 자기 관리를 포함한다. 경제개발은 주로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직업과 관련된 복지 창출에 대한 요구이며, 인간개발은 효과적인 학교,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와 다른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이 핵심을 이룬다. 지역사회의 자기 관리는 좋은 이웃을 위한 비전, 조직, 리더십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자원개발은 청소년을 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을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청소년발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범주적 혹은 목표 지향적 접근과 구별된다. 그 보다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관계나 의사결정 역량 등 책임 있는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체성과 역량 향상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청소년의 고용, 직업이나 일 및 진로탐색 등과 같은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V. 결 론 :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

청소년자원개발 노력은 학교, 일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청소년의 교육과 개발 및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적 요소와 대안들은 청소년발달 관점의 주요 요소와 연계하는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직업능력을 갖춘 준비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사회 활동에 광범위하게 관계할 수 있는 역량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이나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소년과 함께 하는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다.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성취 목록은 청소년이 일상 생활에서 실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한 관련기관이나 조직간의 연계 및 개발의 내용이나 노하우의 융합의 과제들은 학교, 직업교육기관, 청소년단체나 기관 및 일터 등과 같은 '보이는' 기관과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운용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의 '덜 보이는' 작은 노력들과 연대할 때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이는 조직과 덜 보이는 작은 노력의 연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인이 뒷받침될 경우에 가능해진다(참조: Pittman, 2000). 첫째, 청소년자원개발 관점에서 통합적 전략을 추진(재원, 기획, 수행, 평가)하는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문화적 배경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과 일의 분리 관행을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청소년자원개발 관점과 통합적 전략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가치의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자원개발 전략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일과 학습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자원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는 시급히 요청된다. 첫째,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등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반성 하에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기회법(STWOA, 1994년)’을 제정하여 학교와 학교이외의 다른 학습방식의 도입과 직업상담과 지도의 증대를 시도하거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성인, 실직자, 청소년들의 취업 및 훈련전달체제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투자법(WIA, 1998년)’의 제정을 통한 통합적 접근 시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자원개발의 성취 지향적 접근의 융통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된 성인으로의 발달과제 중심의 ‘청소년자원개발지수’를 만들어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의 성인 세계로 이행하는 ‘청소년 삶의 경로분석’에 대한 사례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각종 학교와 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 기업, 종교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의 보이거나 덜 보이는 지역사회 인프라들이 모두 자신의 여건에 따라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의 모색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종합적 운영 체제는 직업능력, 행동, 지식 등의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역량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단위 프로그램의 선택과 선택 프로그램의 성취 수준을 인정하는 제도로 확대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인애(2000). 교육학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 인적자원개발: 다학문적 접근. 제5차 KRIVET HRD 정책포럼 발표 논문. 2000. 8. 25.
- 교육부(2000a).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인적자원 정책방향. 미간행자료. 2000. 8. 18.
- 교육부(2000b).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현황.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보고 자료. 2000. 10. 13.
- 나일주 편저(1994). 산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능률협회.

- 맹영임(1998). 청소년 진로意識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1999). 실업계 고졸 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신명훈(1998). 일과 학습 및 자격의 연계 방안. 21세기 직업전망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오정란(1998).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유영만(1998). 한국 기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서울: 엘테크.
- 이광호 외(1998). 학생 생활실태·의식 조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무근(2000). 인적자원개발: 다학문적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 인적자원개발: 다학문적 접근. 제5차 KRIVET HRD 정책포럼 기초 강연. 2000. 8. 25.
- 이상오(1998). 미국의 산·관·학 연계 사례 분석: School-to-Work 시스템. 진로교육연구 제9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우룡(1999).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정책 방향. 미간행자료. 날짜 미상.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Ⅰ):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재경경제부 외(2000). 경제정책조정회의자료. 미간행자료. 2000. 3. 3.
- 최충욱(2000). 다원 시민사회에서의 청소년육성 방안.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주최.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
- 한준상 편(1997). 한국성인인력개조론. 서울: 학지사.
- 한준상(1999). 호모 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1996). School-to-Work and Youth Development: Identifying Common Ground. *An Agenda for Action*. Boston: Jobs for the Future/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Dusseldrop Skills Forum(1997).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the Next Millenium*. Sidney: Dusseldrop Skill Forum.
- Kauffman, E. M. et. al.(1992). Fully Prepared Youth. <http://www.emkt.org>(검색일: 2000. 8. 22).
- Kumaran, M.(2000). School to Work Transition. Youth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 정책 수립의 과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2000. 10. 10.
- Myrick, R. D.(1997). *Developmental Guidance and Counseling: A Practical Approach*(3rd ed.). Minneapolis: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Nagorski, M. T.(1999). Youth as Resources. *New Designs for Youth Development*. Vol. 15-3. summer.
- National Youth Employment Coalition(2000). PEPNet '00: Reviewer Orientation

- and Training Manual. <http://www.nyec.org>(검색일: 2000. 7. 8).
- NYDIC(1999). Youth Development Project, Program and Coalitions. <http://www.nydic.org/projects.htm>(검색일: 2000. 3. 29).
- Perkins, D. F.(1997). A Method on Presenting Key Concepts Regard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Community Audiences. <http://www.cyfernet.mes.umn.edu/youth dev/perkins.htm>(검색일: 1999. 7. 8).
- Pittman, K. J.(1996). What is Youth Development?: Preventing Problems of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http://www.iyfnet.org /document.cfm/22/general/51/>(검색일: 1999. 3. 6).
- Pittman, K. J.(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YD Journal. Vol.1. No.1. Winter 2000.*
- Pittman, K. J., Cahill, M. and Zeldin, S.(1994). *Youth Employment Preparation Through the Youth Development Lens: Broad Recommendation for Sustaining Change.* Washington D. 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Purdum, T. S.(2000). Behind the wheel and driving the nations culture. <http://search.nytimes.com/2000/09/17/weekinreview/17PURD.html>(검색일: 2000. 10. 8).
- Search Institute(1999). Developmental Assets: An Overview. <http://www.searchinstitute.org/assets>(검색일: 2000. 8. 30).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Zeldin, S. and Charter, I.(1996). *School-to-Work Opportunities Through the Lens of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 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BSTRACT

A Study on the New Direction in the Korean Youth Development Through the Lens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arch for the Theory of Youth Resource Development

Lee, Kwang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youth through the lens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paper seeks to construct of HRD of youth(YRD: Youth Resource Development). YRD as a HRD of youth is multidimensional, embracing:(1) approaches which view youth; (2) youth developmental outcomes as a ultimate goal; (3) strategy for youth resource development. YRD views youth as soci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change agent which contrasted to deficit approaches which view youth as problems and often to lead to services focused narrowly either on treating problems or on preventing risky behavior instead of addressing the full range of needs and competencies required by youth to become fully prepared adults.

Then YRD perspective is a set of principles and ideas about what type of developmental experiences they require to move successfully through adolescence and into productive and healthy young adulthood. To achieve goal and desired outcomes, YRD is focus on the systems, asset-based and place (community) based approaches. It believe a healthy community is key to a youth's successful transition into adulthood. YRD serves as the unifying theme for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youth's workforce development and learning skill development. YRD emphasizes the provision of services, opportunities and supports as essential strategies. After all, YRD is comprehensive and wrap-around perspective helping youth grow and develop into responsible adults,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success.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